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소식지 2017.09 | Vol.02

紐帶 유대 Band

College of Confucian Studies and Eastern Philosophy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소식지
2017.09 | Vol.02

紐帶 유대

College of Confucian Studies and Eastern Philosophy

CONTENTS

유학대학 소식 04
- 2017년 동양철학 · 문화연구소/유교문화연구소 하계학술대회
-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해외학자초청강연
-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하계학술대회
- 한국철학 · 인문문화연구소 현판식
- 유교철학 · 문화콘텐츠연구소 개소
- 동일본국제대학 방문단 유학대학 방문
- 2017학년도 1학기 림관헌 장학금 수여식
- 제5회 유학대학 순성놀이
- 유학대학원 춘계 해외학술답사
- 양현재 입재고유례 봉행
- 양현재 하계 임간수업 개최
- 제4차 NAKPA 국제학술대회 개최
- 유학대학 글로벌유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 임간수업 개최

유학대학 교수 정년퇴임식 05
유학대학 교수 정년퇴임식

특별인터뷰 06
유학대학 정년퇴임 이기동 교수 인터뷰
유학대학 정년퇴임 최영진 교수 인터뷰

유학대학 학생자치활동 10
유학대학 제 32대 학생회 두드림을 소개합니다

동문소식 11
유학대학 동문회 추진 현황

선배들의 진로이야기 12
황수지/오서희/한정미 선생님 인터뷰

알립니다 15

발행일 2017년 9월 1일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주 소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발행인 신정근
편 집 박종상/박정현

2017년 동양철학 · 문화연구소/유교문화연구소 하계학술대회

동양철학 · 문화연구소와 유교문화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코어사업단과 공동으로 2017년 6월 2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첨단강의실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인간의 운명과 자유의지'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신정근 유학대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연구자 6명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 날 정세근(충북대)의 '운명론과 윤리', 박재현(동명대)의 '운명과 자유의지를 보는 선(禪)의 시각', 양일모(서울대)의 '무위자연론에서 인간의 위치', 이애란(성균관대)의 '다산의 운명과 자유의지', 강용수(고려대)의 '운, 정의 그리고 행복', 강상진(서울대)의 '인간의 운명과 자유의지' 등의 연구발표는 운명에 관한 동서고금 사상가들의 견해를 비교 연구하여 동양과 서양으로 구획 지워진 기존의 학문적 벽을 허물고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시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해외학자초청강연

유학대학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사업단이 지난 1학기 제42회~제49회 해외학자초청강연을 진행했다. 2017년 5월 12일(제42회) Stephen C. Angle 교수(Wesleyan University)의 강연(Progressive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을 시작으로 Juji Azuma 교수(일본 관서대), Eirik Lang Harris 교수(홍콩시립대), Gordy Mower 교수(Brigham Young University) 등 8명의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이용윤 양현재감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해외학자초청강연은 해외에서 유학을 연구하고 있는 석학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학술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학기에도 9월 9일 Kawahara Hideki 교수(도쿄대학 대학원)의 강연(중국의학의 영혼론) 등 네 차례 이상 해외학자를 초청할 예정이다.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하계학술대회

유학대학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하계학술대회가 2017년 6월 16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406강의실에서 '東ASIA 思想의 創意的 再解釋'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날 학술대회에서는 신정근 유학대학장의 기조강

연을 시작으로, 尤煌傑(보인대학), 陳昭瑛(대만대), 蔡振豐(대만사범대) 등 해외 학자와 이철승(조선대), 박정심(부산대), 안재호(중앙대) 등 국내 연구자가 본교 연구자들과 함께 '순자의 예악 미학', '주역 사상의 '象'이 중국 미학사상에 미친 영향', '주자의 孝에 대한 해석 및 현대적 의의', '맹자 정치사상의 한국과 일본 유학에서의 재맥락화' 등의 연구발표 후에 본교 유학과 김도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철학 · 인문문화연구소 현판식

유학대학 한국철학 · 인문문화연구소(소장 한국철학과 최영진 교수) 현판식이 지난 2017년 4월 14일 유학대학 교수 및 재학생과 축하 내외빈 등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한국철학 · 인문문화연구소는 한국철학과 사무실(퇴계인문관 31412B)에 사무소를 두고 연구위원 등 20여 명의 연구원이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과 그 기저를 이루는 한국철학 및 인문정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한편 교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등 연구자들의 학술교류를 지원하는 '도원 · 현담기념학술회의사업단'과 한국 및 동양 고전 강의를 통해 전통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한림고전강좌사업단'을 설치하여 한국철학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다.

유교철학 · 문화콘텐츠연구소 개소

2017년 4월 1일 유학대학 유교철학 · 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유학과 김성기 교수)가 개소되었다. 이로써 유학대학은 동양철학 · 문화연구소/한국철학 · 인문문화연구소/유교철학 · 문화콘텐츠연구소의 3개 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대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유교철학 · 문화콘텐츠연구소는 유학의 현대적 역할을 모색하여 학계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유학의 문화자원을 발굴 · 확산하여 기초 유학 연구에 투자하는 동시에 윤리, 인성, 예절, 예술 등 오늘날 현대 사회와 문화 · 예술계에서 필요로 하는 유학의 역할과 이에 대한 학문적 · 이론적 토대를 모색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유교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일본국제대학 방문단 유학대학 방문

동일본국제대학 방문단이 2017년 4월 20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을 방문했다. 미도리카와 히로시 이사장, 요시무라 사쿠지 학장 등 5명의 방문단은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를 견학한 후 유학대학장실에서

신정근 유학대학장, 이기동 교수 등 유학대학 교수들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과 동일본국제대학의 교류 방안에 대해 담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신정근 유학대학장은 "동일본국제대학 이사장님과 학장님의 우리대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1학기 림관헌 장학금 수여식

'2017학년도 1학기 림관헌 장학금 수여식'이 2017년 4월 11일 유학대학 장실에서 진행되었다. 림관헌장학금은 본교 법률학과(56학번)를 졸업하고 현재 유학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림관헌 동문(전 북미주연합동문회장)이 기금을 출연하여 유학대학 학사과정 학생들에게 매학기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학기에는 황준호(유동11), 장소현(유동15) 학생에게 각 17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수여식에는 림관헌 동문과 신정근 유학대학장, 최일범 교수, 백영선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림관헌 동문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 이전에 림관헌장학금을 수혜 받은 차성현(유동12) 등 4명의 학생이 참석하여 림관헌 동문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제5회 유학대학 순성놀이

2017년 5월 13일 '제5회 유학대학 순성놀이'가 개최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과 양현재가 주관하는 순성놀이는 한양도성의 성곽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연 2회(봄/가을) 성곽을 따라 걷는 행사이다. 2015년 5월 처음 시작한 본 행사는 작년 가을까지 네 번의 순성놀이를 통해 한 차례 한양도성을 완주했고, 올해와 내년 5~8회 순성놀이를 통해 두 번째 한양도성 완주를 목표로 한다.

이번 순성놀이에는 신정근 유학대학장을 비롯하여 학사과정, 일반대학원, 유학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60여 명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파견 중인 외국인 유학생 64명이 참석하였다.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에서 출발하여 와룡공원, 혜화문, 낙산공원, 한양도성박물관, 흥인지문을 지나 광희문에 이르는 이번 구간은 수려한 풍광뿐만 아니라 옛 도성과 현대 도시의 모습이 공존하는 시내 전경을 체험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올 해 가을에는 11월 11일(토)에 '제6회 유학대학 순성놀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학대학원 춘계 해외학술답사

유학대학원은 2017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푸젠성(福建省)내 우이산(武夷山)으로 해외학술답사를 다녀왔다. 유학대학원에서는 매년 3박 4일 일정으로 공자/맹자 등 주요 성현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해외학술답사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다녀온 우이산(武夷山)은 UNESCO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있고 원대의 어다원(御茶园) 및 역대 마애석각 등 명승고적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학술답사단은 신정근 유학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총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으며 우이산(武夷山)의 천유봉와 운와, 주희묘, 자양루, 구곡계, 고랑서 해상화원, 환도로(环岛路) 풍경구 등을 둘러보면서 유학의 진수를 몸소 체험하였다.

양현재 입재고유례 봉행

2017년 3월 14일 성균관 대성전에서 양현재(養賢齋) 학생들의 입재 고유례가 봉행되었다. 입재고유례는 새로 선발된 재생들이 성현들에 대한 고유를 통해 양현재 입실을 알리는 행사이다. 이 날 고유례의 헌관은 신정근 유학대학장이 맡았으며 학사과정 48명과 대학원생 50명이 참석하여 재생과 청강생 모두 과거 유생들의 의관을 갖추고 선현들에게 고유하고 참례하며 양현재 입재의 전통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성균관대 양현재(養賢齋)는 유학대학 학사과정생과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임간수업 등을 통해 조선조 성균관 유생들이 동재와 서재에 기재하는 전통을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현재 하계 임간수업 개최

성균관대학교 양현재(전재 신정근)에서는 2017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대구 병암서원에서 2017학년도 하계 임간수업을 시행하였다. 이번 임간수업은 전재를 비롯하여 고전 강좌 강사진과 재생 및 청강생 등 총 56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입재식 이후 3박4일의 일정동안 고전 강좌를 수강하며 양현재의 기숙과 강학 전통을 체험하였다.

제4차 NAKPA 국제 학술대회 개최

제 4차 NAKPA 국제 학술대회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및 유교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성균관대학에서 2017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다. NAKPA(The North American Korean Philosophy Association) 미주기반의 한국철학학회로 2014년부터 매년 국제학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번 학회는 "Why Korean Philosophy Today?: Its Relevance to the Twenty-First Century" 의 주제로 총 30명의 국내외 학자 및 대학원생들의 발표로 진행된다.

유학대학 글로벌유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 임간수업 개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글로벌유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은 본 사업단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유교의 수양과 자기실현' 교과목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순청 홍몽제에서 임간수업을 진행했다. 본 사업단의 임간수업은 연 1회 개최되며 학생들이 고전강좌를 통해 현대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수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임간수업에는 총 30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임간수업 전 [大學] 필사를 통해 고전경서를 읽고 임간수업 간 관련 퀴즈풀이 및 고전 강좌를 수강하여 [大學]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였다.

유학대학 교수 정년퇴임식

이기동 교수, 최영진 교수

유학대학은 2017년 6월 13일 도원 · 현담기념강의실과 유학대학장실에서 유학과 이기동 교수와 한국철학과 최영진 교수에 대한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신정근 유학대학장을 비롯하여 유학대학 전임교원 및 유학/문과대학행정실 전 · 현직 근무자, 학생 등을 포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퇴임식에는 퇴임교원 인사와 꽃다발 증정을 시작으로 유학대학 명예의 전당 사진 헌정식과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올해 8월 31일로 정년퇴임하는 유학과 이기동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유학과와 동양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쓰쿠바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에 지난 1985년부터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을 위해 헌신해왔다. 20년 가까이 동양 철학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강설'이라는 알기 쉬운 오늘날의 언어로 옮긴 끝에 '사서삼경 강설' 시리즈를 상재했으며, 『동양 삼국의 주자학』, 『이색—한국 성리학의 원천』, 『이또오 진사이』, 『공자』, 『노자』, 『장자』 등의 동양 사상서와 『하늘의 뜻을 묻다—이기동 교수의 쉽게 풀어 쓴 주역』, 『한마음의 나라 한국』, 『장자, 진리를 찾아가는 길』 등 다수의 저 · 역서를 출간했다. 아울러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장, 유학대학장, 일반대학원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의 발전과 행정에도 헌신 한 바가 크다. 대외적으로 국제퇴계학회 부회장 및 이사로서 퇴계학의 국제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00년부터 시민을 위한 동양철학 강당 '동인문화원'을 개원하여 유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같은 날 정년퇴임하는 한국철학과 최영진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동양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8년부터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했다. 최영진 교수는 한국 주역학회, 유교학회, 동양철학회, 주자학회, 율곡학회 회장과 무크지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의 편집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학회활동을 통해 중용과 주역을 중심으로 한 유교 경전 연구와 성리학 및 실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 유학 사상에 대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유교사상의 본질과 현재성』, 『주역의 현대적 조명』, 『조선말의 실학자 최한기의 철학과 사상』, 『유교와 페미니즘』, 『조선조 유학 사상의 탐구』, 『성과 철학』, 『다윈주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등 다수의 저서,편서,역서를 저술하였으며, 성균관 한림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한국철학의 세계화 작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유학대학 **이 기 동** 교수

유학대학 소식지 '유대(紐帶)' 2호에서는 올해 8월 정년퇴임하시는 유학대학 이기동 교수를 인터뷰하였다. 이기동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유학과와 동양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쓰쿠바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에 지난 1985년부터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을 위해 헌신해왔다. 오랜 기간 몸담았던 성균관대학교를 떠나는 소감과 유학대학 구성원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일지 들어보기로 하자.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평생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Q 오랜 기간 몸담았던 성균관대학교를 떠나는 소감과 미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균관대학교 교수직의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2년 6개월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하룻밤 꿈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저에게 수많은 대학교 중의 한 대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공부에 등 돌린 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공부는 대학교 입학시험을 위한 것일 뿐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성균관대학교는 구세주였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한 뒤 비로소 학문하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되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을 계속하는 것은 줄곧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모교의 교수가 되어 후학을 가르치게 된 것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행복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정년을 맞아 되돌아보면 행복을 누리기만 했을 뿐 후학들에 대한 가르침에 미진한 것이 많았다는 생각에 후회가 남습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았고 가르치는 것에 게으름이 없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 부끄럽습니다.

지금의 교육방법이 공자 때의 교육방법과 달라서 지식교육에 치우치고 참인간이 되는 방법이 부족한 것을 늘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정년 후에는 이 점을 보완한 학문방법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학문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Q 봉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간 학교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88년도에 학생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학대학에 유학과 한국철학과 동양철학과의 세 학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양철학과에 소속이 되었었는데, 당시 학생들 중에 이기동 교수 퇴진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학생들 중에는 퇴진운동에 서명한 학생과 반대하는 학생으로 나뉘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바라보는 저로서는 마음이 아

팠습니다. 결국 1년 뒤에 다른 연구기관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이사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유학과 교수 전원이 학교에 탄원을 하여 유학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기로 했던 연구기관에 미안한 마음은 아직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2007년에 제가 사서삼경 강설시리즈를 완간했을 때 제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어준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2003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쓴 대본으로 〈공자〉라는 이름의 무용이 만들어져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되었고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이 특히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기억에 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외부에서 입학한 제자들 기억은 잊기 어렵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배요한 목사가 입학했을 때는 그와 함께 성경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를 미국으로 유학하도록 권유하여 성공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에서 유학을 온 바바라 양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 여학생은 8개 국어가 능한 인재였는데 석사과정을 마치고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 허가한 것이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그녀를 우리 학교 박사과정에 진학시켜 큰 인재로 성장시켰어야 했는데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유학자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의 유학자의 길은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부친께서 늘 옛 선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때 무의식적으로 선비의 길에 흥미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막상 유학과에 지망하게 되었을 때는 저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하느라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모집대학의 시험에 불합격을 하고 당시 2차 시험으로 학생모집을 하던 성균관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지인이 찾아와 성균관대학교에는 동양학 분야에 지원이 많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에 솔깃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 때는 여전히 방황을 하였습니다만, 2학기 때 동양철학에 관한 수업을 듣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전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더라면 오늘날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유학대학에 입학한 것이 저의 일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행운이었습니다.

Q 유학 분야에서 연구와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대학에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전공을 택하는가가 오늘날 학생들이 처한 고민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잘못된 고민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고민해야 할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이고, 외면적으로는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제쳐두고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나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한 뒤에 다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군자가 된 뒤에 정치인이 되어야 정치가 제대로 될 것이고, 기업경영을 해야 경영이 제대로 될 것이며, 스승이 되어야 교육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이는 그 외의 모든 분야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학을 공부하려고 결정한 후학들은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열심히 노력하여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Q 일반대학원장, 유학대학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과 구성원이 앞으로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원장과 유학대학장을 역임했습니다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여타의 대학과 다릅니다. 여타의 대학의 교육목표는 참된 인간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군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시는 다릅니다. 인의예지와 수기치인을 통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건학이념과 교시에 충실하게 교육을 하여 전교의 학생들을 군자로 만들기만 하면 바로 세계 1위의 대학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학교육을 좀 더 늘려야 하고 수기의 방법과 내용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행복해지고 군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남아 있는 유학대학의 구성원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과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유학대학 학생들은 일단 외롭기 쉽습니다. 경제학, 경영학, 영문학, 사학 등의 다른 학문은 학교마다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전공하고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학대학은 다른 학교에는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흔들리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정신을 팔다가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놓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자기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자기의 인생을 음미해야 합니다. 참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평생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라야 유학대학에 입학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라야 학문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디 이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용』에서
"다른 사람이 한번 해서 능히 할 수 있다면
나는 백번하고, 다른 사람이 열번해서 능히
할 수 있다면 나는 천번 한다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라는 글귀가 있는데, 나의 좌우명입니다.
이렇게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학대학 **최 영 진** 교수

유학대학 소식지 '유대(紐帶)' 2호에서는 올해 8월 정년퇴임하시는 유학대학 최영진 교수를 인터뷰하였다. 최영진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동양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8년부터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유학 사상에 대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철학의 세계화 작업에 큰 기여를 해왔다.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최영진 교수가 우리 유학대학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과 당부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Q 오랜 기간 몸담았던 성균관대학교를 떠나는 소감과 미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40여년 간 명륜동 캠퍼스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훌륭하신 스승님들과 좋은 동료 교수와 유능한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총명한 제자들을 만나 행복하게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자들과 함께 공부한 것은 큰 행운입니다. 나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생기면 대학원 강의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원전을 독해합니다.

젊고 유능한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사단칠정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그 이유는 석사논문을 지도받는 학생이 내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학기에 걸쳐 대학원생들과 퇴계/고봉 사단칠정논변서를 분석했습니다. 나도 물론 새로운 논문을 작성했지만, 학생들도 수강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재직 기간 동안 3권의 전문학술서와 1권의 교양서를 국내외에서 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곧, 학자로서의 삶을 중간 결산하는 다섯 번째 저서가 출판됩니다. 그리고 한국철학 전공 박사 30여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임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나는 유학대학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고 학생들도 내 강의를 좋아하는데, 이제 학부생들을 강의실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논증했으며, 그 논증은 정당한가'라는 미시적인 문제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시적으로, 사상사학적 · 문명사적 시각에서 한국철학사를 집필할 계획입

니다. 중국철학사와 서양철학사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불교학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국철학사가 완성되면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하여 외국의 명문 출판사에서 간행해서 한국사상의 진수를 국제학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Q 봉직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교수는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학자입니다. 교육자로서는, 역시 제자들이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보람입니다. 작년에 한국철학전공 대학원생 2명과 함께 프랑스 파리의 INALCO(국립동양어문화대학)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했는데, 학생들의 열정과 논문 수준에 프랑스의 한국학교수들이 감탄했습니다. 박사과정에 이제 막 진학한 학생을 전국 규모 학술회의에서 발표시킨 적이 있는데, 박사과정 1학기생 논문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학자로서는, 내가 연구하고 발표한 주장들이 원로 선생님들과 학계에서 인정받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서양철학이나 사회과학 등 타 전공교수들과 외국학자들이 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평가를 해줄 때 한국철학을 공부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Q 유학사상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 삶의 반은 기독교였고 반은 문학이었습니다. 교회는 금력과 권력 같은 세속적 가치를 넘어선 참다운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문학은 삶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해주었고, 문학동인회에서 혹독한 문장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는 내 알량한 이성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문학은 '인생이란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사실만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나는 극심한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그 때 아무런 전제 없이 궁극적 존재를 추구하는 철학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적인 서양적 사유보다 동양적 사유가 보다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글귀를 『사상계(思想界)』에서 읽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동양철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동양철학에 대한 강좌가 가장 풍부하게 개설된 성대 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학과에서 철학 전반을 공부했는데, 특히 유교적 논리를 규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대학원에서 '중(中)의 논리'를 중심으로 유학의 사유체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후 유학 중에서도 한국유학의 탁월성에 눈을 뜨고 흥미를 느끼면서 50대 중반 이후에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국유학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Q 유학 분야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학문이든지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 자신의 학설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적 전통, 특히 한국적 전통을 발전시키는 학문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학대학 학생들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서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성대는 유학을 연구하는데 매우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조언을 하자면, 중국유학이나 일본유학을 전공하더라도 한국유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학습하십시오. 해외의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학자가 중국유학이나 일본유학에 대해서 발표하면 외국학자들은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유학사사상, 또는 중국유학과 한국유학을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하면 상당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유학, 특히 조선성리학이 당대 동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성취했다는 사실은 이제 외국 학계에서도 공인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과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중용』에서 "다른 사람이 한번 해서 능히 할 수 있다면 나는 백번하고, 다른 사람이 열번해서 능히 할 수 있다면 나는 천번 한다[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라는 글귀가 있는데, 나의 좌우명입니다. 이렇게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꿈과 미래 **DREAM!** 해낼 수 있는 자신감 **DO!** 학우에게 다가가는
학생회 두드림!

제 32대 유학대학 학생회 두드림 소개합니다.

Q. 유학대학 학생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합니다. **A.** 반갑습니다! 제 32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학생회 '두드림'의 학생회장 유학 · 동양학과 15학번 백선욱, 부학생회장 유학 · 동양학과 16학번 최현준입니다. 유학대학 소식지 '유대(紐帶)'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학생회 '두드림'은 올해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됐으며, 현재 3명의 국장과 18명의 국원과 함께 유학대학 학생자치활동을 이끌어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의 슬로건은 '꿈과 미래 DREAM! 해낼 수 있는 자신감 DO! 학우에게 다가가는 학생회 두드림!' '꿈꾸는 유학대를 두드림!'입니다. 항상 학우들이 꿈꾸는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우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학우들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Q. 어떤 계기로 유학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당선된 이후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A.** 저희는 전대 학생회인 SO儒 때부터 학생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고 좋아했기 때문에 시작했었지만, 점차 학우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직접 기획할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여러 사정으로 학생회 활동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민 끝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회장단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난 한 학기 동안 저희는 우선 학생자치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시스템을 다시 재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회 조직 내에 대외연계국을 신설해 유학대학 대내외 여러 단체들과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했고, 학우들이 유학대학 소식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시스템(SNS 서비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카드뉴스 등)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내 프로젝트 팀인 성균관 가이드 팀 '재회'(홍보대사)와 사회 공헌 팀 '드림'(봉사단체) 등을 신설 · 개편하면서 유학대학을 소개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노력했습니다.

Q.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학생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A.** 학생회 '두드림'은 '시스템, 문화, 학교연계, 복지' 네 가지 핵심 정책 분야를 바탕으로 사업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학기에는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학대학 학생 주요 단체 및 활동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우선했다면, 2학기에는 학생 문화와 복지 사업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문화 사업은 학년별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 진입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 정보 사이트 '유탐' 개설(2학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설하는 취업 도움 프로그램과 유학대학 맞춤형 취업 · 진학 매뉴얼(4학년), 학년별로 친목 도모도 하고 학사정보도 얻는 '배움터 주간'(전학년) 등이 있습니다. 복지 사업은 학우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점들을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물품을 학생회에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유학대학 물품 대여 사업, 학업과 함께 다양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소모임 · 학회 지원 사업, 전공 · 교양서적을 물려줄 수 있는 유학대학 책 중고장터 등이 있습니다.

– 학생회 핵심 정책 및 주요 공약 –

DREAM! 더 나은 체계를 꿈꾸다!
- 성균관 가이드 팀 '재회' 개편
- 사회 공헌 팀 '드림' 신설
- 전공 서적 대여 사업 개편
- 홍보 시스템 다양화 및 매뉴얼 제작

DO! 학년별 맞춤 공약!
- 문과대학과의 연계 전공설명회
- 유학대학 통합 정보 사이트, '유학대 에브리타임' 개설
- 고학번 대상 '헌내기 새로배움터' 추진
- 학생 신청 맞춤형 취업 · 진학 프로그램 개설
- 유학대학 맞춤형 취업 · 진학 매뉴얼 제작
- '유학대의 밤' 정례화

두드림! 학교의 문을 두드리다!
- 학생회 조직 내 '대외연계국' 신설
- '학생회–학과 회의체' 신설

드림! 아낌없이 드립니다!
- 소모임 · 학회 지원 사업
- 유학대학 책 중고장터
- 유학대학 물품 대여 사업
- 냉 · 난방기 교체 사업
- 택배 대리 수령 사업
- 시험기간 야식 배부 행사 '다드림' 추진

Q. 마지막으로 유학대학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과 다짐 한 마디 해주세요. **A.** 지난 한 학기 동안의 학생회 활동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학생회 성립이 늦어져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면서, 유학대학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과연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희들을 믿고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묵묵하게,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슬로건처럼 꿈꾸는 유학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학생회 '두드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학대학 동문회 추진 현황

학과별 동문회 구성을 위해 준비 중인 동문들과 동문회 구성 추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유학과

- **9월~10월** 유학과 동문회 추진위원단(7명)/ 집행부 구성/회칙 제정
- **11월~12월** 유학과 동문회 출범식 개최

한국철학과

- **4~8월** 한국철학과 동문회 추진위원단(27명) 구성
- **10월 중** 한국철학과 총동문회 출범식 개최
- **12월 초** 한국철학과 송년회 개최

동양철학과

- **7월~9월** 동양철학과 동문회 추진위원단(62명) 구성 및 조직 개편 논의
- **9월 15일~17일** 동양철학과 동문회 결성 및 홈커밍데이 준비

유학대학원

- **4월~8월** 유학대학원 동문회 추진위원단(33명) 모임 (4차 개최 완료)
- **9월~10월** 유학대학원 동문회 추진위원단 모임/ 집행부 구성/회칙 제정
- **10월~12월** 유학대학원 동문회 출범식 준비 및 개최

– 학과별 주비위원 –

유학과

성 명	박홍식(유학73)
연 락 처	010-2329-1320
이 메 일	hong@dhu.ac.kr
자문위원	김성기 교수

한국철학과

성 명	진영주(한철89)
연 락 처	010-9275-2208
이 메 일	cyly@naver.com
자문위원	최일범 교수

동양철학과

성 명	함현찬(동철87)
연 락 처	010-8705-1774
이 메 일	foprajh@hanmail.net
자문위원	박상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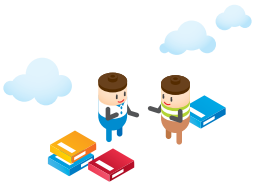
유학대학원

성 명	이흥근(유학원'13)
연 락 처	010-5410-4115
이 메 일	root0102@kofia.or.kr
자문위원	신정근 교수

동문소식을 알려주세요! ☎유학/문과대학행정실(02-760-0916, jplee@skku.edu)

현직 교사 인터뷰

한정미 / 황수지 / 오서희 졸업생



유학대학은 매년 11월에 4~6명의 교직이수예정자를 선발하고 있다. 2학년 2학기 재학생이면 신청 가능하고 졸업 전까지 교직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경우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도덕 · 윤리)을 취득하게 된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임용고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를 응시할 수 있다.
'유대(紐帶)' 2호에서는 교직 과정 이수를 통해 중 ·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졸업생들을 인터뷰하였다.

한정미 졸업생 (유학 · 동양학과 06)

Q. 소식지를 보고 있을 동문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졸업 후에 이렇게 소식지로 인사하게 되어 어색하기도 하고 저의 이야기가 유학대학 동문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마음이 설레네요. 저는 06학번 한정미라고 합니다. 유학 · 동양학과와 경영학과를 전공했고 대학시절에는 교내 학교발전홍보대사와 연합 봉사동아리를 하며 대학생으로서 즐거운 추억들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Q. 교사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처음부터 교사만을 직업으로 꿈꾸지는 않았어요.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아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이것저것 도전해보다 결국 교사의 길로 오게 되었어요. 저의 첫 직장은 대기업이었어요. 취업 준비 기간도 1년은 거쳤던 거 같아요.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었지만 이름을 좇아 들어간 직장은 자기다움을 잃게 하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고민 끝에 퇴사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고민하다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던 교사라는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Q. 준비기간 및 과정은 어떠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이미 졸업한 이후여서 임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고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보다는 나이도 있었기에 선뜻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한 다른 동문 후배에게 먼저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공부했고 임용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었죠. 저는 노량진에 학원을 직강으로 수강하면서 혼자 공부했어요. 2014년 봄부터 준비해서 그 해 경기도로 1차 합격했지만 최종에서 탈락하고 좀 우울했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계속 혼자 공부하기에는 외롭고 힘들어서 스터디를 모집해 주 1회 함께 공부했어요. 첫해에는 합격 수기를 보고 공부 방법을 고민했었는데 저와는 맞지 않았던 것도 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다음해 2016년 서울로 최종합격하게 되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작정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마다 공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요. 참고로 저는 서브노트 만들기가 시간낭비만 되었었거든요. 두 번째는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라는 건데요. 1차는 선택이지만 2차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특히 서울, 경기의 경우 2차의 변별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게 되면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함께 준비하면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다양한 조언도 얻을 수 있기에 1차 시험이 끝나면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스터디원들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세요.

Q. 교직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유학대학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의 경우 뒤늦게 시작하는 임용공부여서 합격할 수 있을까 겁도 났고 도덕 · 윤리 TO가 많지도 않은 터라 마음은 하고 싶었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책을 읽었어요. 고민만 하고 있다면 결국 시간만 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 보세요. 임용공부 해보기 전에는 이 공부가 본인에게 맞는지 교사라는 직업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는 거니까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의 저는 교사로서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직을 진로로 생각하는 후배님들 교단에서 웃으며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후배님들의 꿈을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황수지 졸업생 (유학 · 동양학과 07)

Q. 소식지를 보고 있을 동문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 · 동양학과를 졸업한 07학번 황수지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에 경기도 중등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현재 부천의 한 고등학교에 윤리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 3 담임을 맡게 되어 하루 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작년에 가르쳤던 3학년 학생들이 올해 17학번이라고 하니, 지금 대학교에 계신 후배님들이 벌써 저의 제자뻘이 되는 이런 날이 오는구나하고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Q. 교사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별다른 계기는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막연히 교사가 되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학교 이후로 줄곧 저의 장래희망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윤리 과목의 교사가 되고 싶어 성대 유학 · 동양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 전공 공부를 하면서 윤리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더욱 커졌습니다. 동양철학이라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은데, 윤리 교사가 되면 전공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좋았습니다. 제 주변의 동기들은 보통 사회계열 쪽의 복수전공을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철학이 너무 좋았고, 철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교사가 꼭 되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큰돈을 버는 것보다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Q. 준비기간 및 과정은 어떠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010년에 제가 4학년이었을 때, 윤리교사의 전국 선발인원이 19명이었습니다. 정말 운도 없었죠. 사범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 벅찼습니다. 결국 임용고시 보는 것을 포기하고 방향을 돌려 2010년 말부터 서울시 교육행정 9급 준비를 했습니다. 겹치는 과목이 많아서 바로 다음해에 합격하여 서울의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면서 교사라는 꿈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학생들과 지식을 나누고 싶고, 의사소통을 하고 싶고,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너무 커져서, 결국 2013년이 되자마자 사직서를 내고 제대로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바로 노량진 전공강의를 신청해서 직강으로 듣고,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하는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겠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 근처의 공공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8월 중순에 대학 때 했던 학회에서 OB학회원들끼리 엠티를 갔었는데, 밤새서 놀고 다음날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1시간이라도 기본서를 보다가 집에 가서 잤습니다. 매일 하니까 실력이 느는 것이 제 스스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에 바로 합격하여 2014년에 초임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Q. 교직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유학대학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약간은 다른 길을 돌아서 교사가 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교사의 꿈을 꾸고 계신 후배님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방황하다가 돌아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 임용 상황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걸 피해서 다른 길로 가면 저처럼 뼈저리게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요즘 윤리 교과의 교원 선발인원은 다른 교과에 비해 '블루오션'이라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올해 사전예고된 선발 인원이 130명이 넘는데, 거의 영어, 수학 교과와 맞먹는 인원입니다. 그러니 꼭 미리미리 전공 공부하시고, 교직과목 들으실 때 암기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서 꼭 원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서희 졸업생 (유학 · 동양학과 07)

Q. 소식지를 보고 있을 동문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 · 동양학과 07학번 오서희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도덕윤리 교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Q. 교사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사범대학에 진학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성균관대학교 유학 · 동양학과에 입학하게 되어 교직이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고 교사에 대한 꿈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Q. 준비기간 및 과정은 어떠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도덕윤리 임용준비를 쉽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임용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회 과목으로 교직복수 전공도 시도하고, 국어나 영어 등과 같은 다른 과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도덕 · 윤리 이외의 방법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결국 도덕 · 윤리로 임용을 보기로 결정하고, 제일 먼저 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학원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무슨 학원이 있는지 어떤 강사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기 때문이지요. 오직 인터넷 검색만 의존하여 학원 및 강사를 선택하였고, 전 그 강사를 무한히 신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임용에 대한 정보를 줄 사람은 오직 학원 강사뿐이기 때문입니다. 임용을 준비할 때 여러 원전과 필수 도서도 함께 봐야했지만 저는 학원 수업 따라가기도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1~3차(제가 임용 볼 당시에는 3차까지 시험이 있었습니다.)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통과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면접이나 수업시연 부분에는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1, 2차 성적을 높게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늘 불안감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교직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유학대학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준비할 당시에만 해도 교직을 준비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임용에 도전하시고 합격하셔서 실제 현장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교사가 되길 원하시는 분은 도전하셔서 실제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싶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해외학자초청강연

〈제 50회 해외학자초청강연〉

일시 | 9.9(토)
강연 | 가와하라 히데끼(도쿄대학 대학원)
주제 | 중국의학의 영혼론

〈제 51회 해외학자초청강연〉

일시 | 9.20(수)
강연 | 林月惠(台灣 中央研究院)
주제 | 한국유학의 반성: 도루 다카하시의 主理派·主氣派 해석구조에 대한 비판

〈제 52회 해외학자초청강연〉

일시 | 10.18(수)
강연 | 黃裕生(中國 清華大學)
주제 | 유학의 종교성

〈제 53회 해외학자초청강연〉

일시 | 12.7(목)
강연 | 김성문(홍콩시립대)
주제 | 다원주의사회에서 유교민주주의는 가능한가?
문의 |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02-760-0257)

2017학년도 유교문화연구소 추계 학술회의 "유학은 과학의 발달을 저해했는가?"

일시 | 9.9(토) 13시-18시
장소 |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2017학년도 유교문화연구소 동계 학술회의 "心, 몸과 마음의 철학"

일시 | 12.9(토) 13시-18시
장소 |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제5회 유학대학 순성놀이

일시 | 11.11(토)
문의 | 유학대학 홈페이지(http://scos.skku.edu/scos) 10월 중 공지

2017학년도 유학대학원 추계 해외학술답사

일시 | 9.15(금)~9.18(월)
장소 | 중국 절강성
문의 | 유학/문과대학행정실(02-760-0916)

2018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진학설명회

〈서울〉

일시 | 9.19(화) 13:30-15: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층 조병두홀

〈대전〉

일시 | 9.8(금) 15:00
장소 |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 3층 대회의실

〈대구〉

일시 | 9.15(금) 15:00
장소 | KTX 동대구역내 3층 제2맞이방 102호 회의실
문의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 (https://gradschool.skku.edu)

2018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일반전형 모집

원서접수 | 9.27(수)~10.18(수)
문의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 (https://gradschool.skku.edu)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직이수 신청

신청기간 | 11.13(월)~11.17(금)
대상 | 유학·동양학과 2학년 2학기 재학생
문의 | 유학/문과대학행정실(02-760-0912)

유학·동양학과 '유학대의 밤' 행사

일시 | 11.18(토)
대상 | 유학·동양학과 학사과정 학생
문의 | 유학대학학생회(02-760-1421)

글로벌유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 Global Camp

일시 | 11월 초
장소 | 해외지역 선정 중
문의 | 글로벌유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02-740-1832)

성균관대학교
SUNG KYUN 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http://scos.skku.edu
http://gscs.skku.edu